광주서 특강 에더 파야규아제 아마존 족장의 호소

지난 27일 전남대에서 열린 '광주, 생명의 땅 아마존을 만나다'특강에서 바네사(왼쪽)변호사와 에더 족장이 광주시민들에게 아마존 파괴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자원개발, 다음세대까지 생각하라"

열대우림 석유개발로 30년간 한반도 4배 사라져

친환경 에너지 개발, 정부와 국민 함께 노력해야

"우리에게는 더 이상 농사 지을 땅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게 날개가 있다면 어디로든 떠나고 싶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지난 27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6층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관한 '광주, 생명의 땅 아마존을 만나다' 특강이 열렸다.

에콰도르 누에바 로하(Nueva Loja)지역 아마존 밀림에 거주하는 세꼬야족 에더 파야규아제(32) 족장은 다국적 기업이 석유와 벌목을 하며 숲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또 그 속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스페인어로 '적도'를 뜻하는 에콰도르는 브라질을 거쳐 한국까지 비행시간만 31시간이 걸릴 정도로 먼 나라다. 이곳에는 70억 인류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있다. 한국 면적에 30배에 달하고 에콰도르, 페루 등 9개 나라에 걸쳐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자원개발 명목으로 지난 30년간 한반도 4배 면적이 사라졌다.

에더 족장은 아마존 원주민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익숙한 듯 담담하게 전했다. 이 자리에는 에더 족장과 아마존 보호를 위해 활동 중인 바네사 바르함(여·29·에콰도르)변호사가 광주시민들에게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지난 1964년 미국의 한 기업이 아마존 북부 오리엔테 지역에서 땅 속 석유를 발견했다. 미국인들은 아마존 원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석유를 뽑아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30여 년간 아마존에 300개가 넘는 유정을 개발했고 석유채굴을 마친 1000개가 넘는 구멍을 그대로 방치한 채 떠났다. 방치된 유정에서는 석유와 함께 땅 속 유해가스가 대기와 지표면으로 확산됐다. 오염물질은 아마존 강과 숲으로 흘러들었고 비가 되어 인간과 동물을 병들게 했다.

"아이들이라도 오염된 아마존을 떠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은 지난 30년간 기업이 유해한 성분을 차단할 충분한 기술이 있었지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고, 폐기물 무단 방류를 인정하면서도 원주민에게 배상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들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삶의 터전을 지키자는 사람들과 보상을 받고 떠나자는 의견이 대립하며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기업은 막대한 이윤만 챙기고 원주민들에 대한 배상은 뒤로한 채 에콰도르를 떠났다.

아마존왓치 등 환경단체와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원주민과 기업의 법정 다툼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에더 족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환경파괴에 대해 더 많은 한국인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간곡히 호소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아마존 숲이 파괴돼 저희가 겪는 고통은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당신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한국영화 관객 2억명 시대 열린다

숨바꼭질·설국열차 등 8월에만 2000만명 넘어

누적관객 400만명 영화 8편… 배급사 큰 영향력

한국영화의 한 달 관객 수가 8월에 사상 처음으로 2000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올해 2억 관객 돌파가 유력해지는 등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연초부터 1천만 관객 영화가 나오더니 누적관객 400만명이 넘는 영화만 8월까지 8편이 나왔다.

영화 전문가들은 한국영화의 약진 원인으로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고, 역량 있는 신인감독들이 상당수 배출됐다는 점을 꼽고 있다.

지난 2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한국영화를 관람한 관객 수는 총 2043만6234명이다. 지난 26일까지 총관객 수는 1억4361만 명으로, 월평균 1800만명 정도가 든 점에 비춰 올해 사상 처음으로 2억 관객은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도 2009년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이래 2010년 1조 1572억원, 2011년 1조 2357억 원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1조 4551억원을 달성했다. 올해는 1조 5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영화가 초유의 강세를 보이는 건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프로젝트 등 기대작뿐만 아니라 예상외의 복병들이 잇달아 히트대열에 합류하면서 한국영화의 외연이 풍성해졌다는 평가다

현재까지 '설국열차'는 약 880만명, '더 테러 라이브' 540만명, '숨바꼭질' 407만명, '감기'도 약 270만명의 관객을 기록했다.

특히 '설국열차'는 실제로 영화 개봉 전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67개국에 선판매됐다.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최다 판매 기록이다. 제작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2000만 달러 가량을 해외수출로만 벌어들였다.

또 누아르 영화의 부활을 알린 '신세계'(468만명), '딸 바보 아빠'를 전면에 내세워 신파에 호소한 '7번방의 선물'(1281만명), 하정우·전지현 등 특급 배우들이 출연한 '베를린'(716만명)도 흥행대박을 터트렸다.

영화관객이 공연 등 인접 예술보다 눈에 띄게 증가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라게 중론이다. 실제로 영화는 주말 가격을 기준으로 1만원 정도다. 그러나 뮤지컬은 5만~14원, 연극은 3만~6만원, 콘서트도 10만 원을 호가하는 등 영화보다 월등히 비싸다.

영화시장의 '판'을 키운 배급사의 역할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영화 시장을 키운 데는 작은 투자·배급사 '뉴(NEW)'의 등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회사는 10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7번방의 선물'을 비롯해 '신세계' '감시자들' '숨바꼭질'을 투자·배급한 회사다.

그러나 한국영화가 성장동력을 유지하려면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지욱 평론가는 "대기업의 마케팅이 위력을 발휘하는 데다 흥행작과 비 흥행작의 편차가 심해지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스크린 독과점에 따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기획영화에만 치중하다 보면 엇비슷한 영화들이 쏟아지면서 지난 2006년 이후 침체기에 빠진 상황의 재탕이 될 수도 있다"며 "재치있는 신인감독과 다양한 시나리오를 꾸준히 발굴하는 한편, 내수뿐 아니라 해외시장에 적합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해조류 추출물로 적조·녹조 동시 방제

순천대 나재운 교수팀 3년 연구 '합사이드' 천연물질 개발

나재운 교수

순천대 나재윤 교수팀이 적조와 녹조를 일거에 사멸시키는 획기적 물질을 개발해 화제다.

순천대 고분자공학과 생체의료용 고분자 연구실 나재운·장미경·박상철 교수팀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지난 3년여의 연구 끝에 최근 적조와 녹조 생물을 사멸시키는 방식의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개발한 물질은 해조류에서 추출한 천연 물질로 '합사이드(HAB cide)'로 명명됐다.

연구팀은 최근 합사이드에 대한 효능 테스트 결과 괄목할만한 효과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적조의 경우 오염된 바닷물이 든 10t크기 수조에 합사이드를 투입한 결과 20분만에 적조가 깨끗하게 사라졌다. 녹조 역시 감염된 저수지물 600ℓ에 합사이드를 투여, 2시간여 만에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합사이드의 적·녹조 방제원리는 유해조류의 세포막에 직접 침투해 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으로, 단순하게 유해조류 세포와 결합해 수면밑으로 가라앉히는 황토와는 방제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해조류 추출물이 천연물질이어서 투입 후 바다에도 아무런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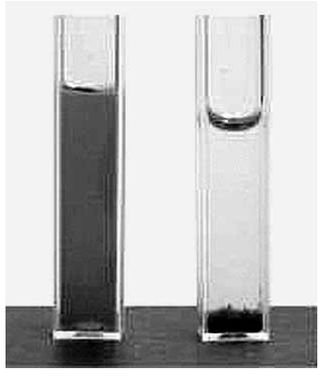
나 교수는 "제한된 실험 공간에서의 테스트 결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바다 현장 테스트를 아직 못해 상용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바다 현장 테스트를 하려면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바다 현장 테스트 전제 조건으로 합사이드 투입에 따른 바다 생태계 이상 여부, 어패류가 먹었을 경우 유해성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을 요구했다.

나 교수는 "해수부 요구 조건을 이행하고 싶어도 이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걱정"이라며 "합사이드로 해마다 반복되는 적조와 녹조를 빨리 퇴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지난 2002년 세계 최초로 수용성 키토산을 개발, 국내외 특허를 따냈다. 2004년에는 이를 토대로 기존 항암제보다 8배 강하고 유방암, 난소암, 간암 등에 효과가 큰 항암제 키토탁셀을 개발하기도 했다.



해조류에서 추출한 천연 물질로 '합사이드' 투입으로 적조생물이 사멸되는 테스트 장면. 〈나재운 교수 제공〉

2003년는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선발한 '젊은과학자상'을, 지난해에는 정밀화학공업 발전 기여자로 인정받아 '한국공업화학상'도 받았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2013년 2학기
公認 國家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7기)	광주교육대학교(8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2013. 9. 6.(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2013. 9. 7.(토) 09:10 (중급반)	·월, 목 야간반:2013. 9. 2.(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2013. 9. 5.(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2013. 9. 7.(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3. 7. 25.(목) ~ 9. 7.(토)	2013. 7. 25.(목) ~ 9. 7.(토)
수업기간	2013. 9. 6.(금) ~ 2014. 2. 22.(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3. 9. 2.(월) ~ 2014. 2. 22.(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 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ttp://www.gnue.ac.kr/

지난 15년간 9,000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 성공전략!!
부동산 실전경매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마케팅전공)
평생교육공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 방송국 특강,
KBC-TV 아침마당 출연강의 등
건설교통부장관 초청 세미나토론자 참여

13년 9월~12월 선착순 70명 마감

장 소	교육대 평생교육원
일 시	매주(화) 주간 : 10시 야간 : 19시
연락처	062)520-4243
장 소	전남대 평생교육원
일 시	기본반 매주(수) 15시/ 19시 실전경매 매주(목) 14시/ 19시
연락처	062)530-3873~5

강의료 12만~18만 (4개월 강의료)

특전 : 공인빌딩관리사, 부동산경매분석사
부동산 권리분석사 자격취득 하도록 책임지도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① 연수일정(2013년 제11기)
· 개강일시 : 2013. 9. 2(월) 기초오후 14:00 기초야간 18:30
심화오후 14:00 심화야간 18:3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3. 8. 1(목) ~ 2013. 8. 31(토)
· 수업기간 : 2013. 9. 2(월) ~ 2013. 12. 20(금) (총 90시간)
· 수 강 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오후반 : 30명 기초야간반 : 30명
심화오후반 : 30명 심화야간반 : 30명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하고, 기초반 수료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심화반 편입 가능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오후반 : 14:00~17:00 야간반 : 18:30~21:00
● 수료 후 특전
· 1,2단계(기초, 심화) 연수과정 수료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1,2단계(기초, 심화)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① (사)한국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②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일 공휴일 휴무)
· 전화 (062) 530-3873~3876
담당교수 :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 : //sle.jne.go.kr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한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o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KHSA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au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상담전화 1899-3975 H.P 010-3598-7080